



미 증시, 중간선거 불확실성 확대되며 급락

미국 증시 리뷰

9일(수)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전일 강세 보였던 공화당 수혜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, 암호화폐시장 불안도 재차 증폭됨에 따라 급락 마감(다우 -1.95%, S&P500 -2.08%, 나스닥 -2.4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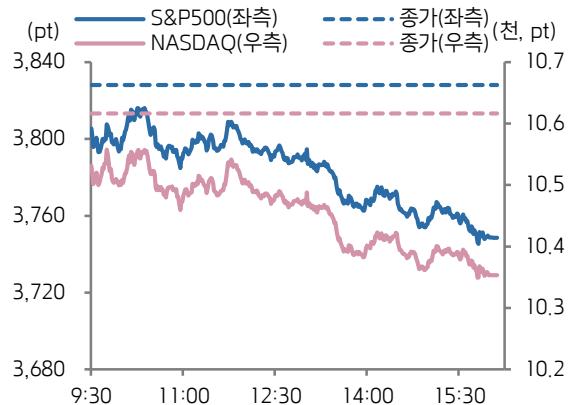
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은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조지아, 네바다, 애리조나 4 개주. 현재 양정당의 의석수는 50:49로 12 월 6 일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조지아주 제외 네바다 공화당 우세, 애리조나 민주당 우세로 불확실성은 확대.

전일 유동성위기를 맞은 FTX 인수를 발표했던 바이낸스가 하루만에 인수 의향을 철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옴. 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 급락 및로블록(-21%)와 로빈후드(-13.8%), 코인베이스(-9.5%) 주요코인들 거래소 관련주 하락 지속.

중국 10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+2.1% (예상+2.4%, 전월+2.8%) 증가하며 3 개월 연속 예상 하회하며 소비 침체 우려를 높임. 10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-1.3% (예상-1.5%, 전월 +0.9%) 하락, 2020년 12 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기록. 다만 재고조정과 상품가격 하락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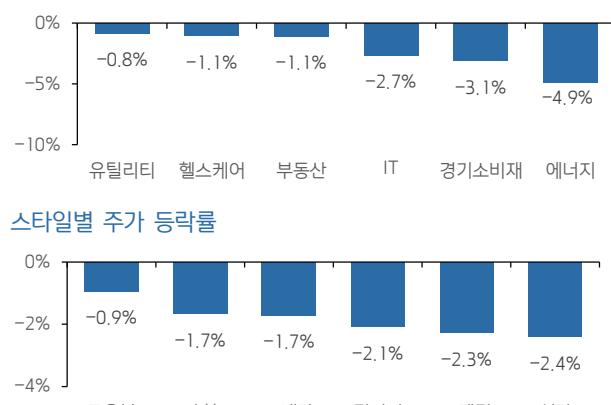
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(-0.8%), 헬스케어(-1.1%), 부동산(-1.1%)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, 에너지(-4.9%), 경기소비재(-3.1%), IT(-2.7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커짐. 공화당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에너지섹터의 낙폭이 가장 커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임. 메타(5.18%)는 인력 10% 감축을 결정하고 23 년 1 분기까지 신규고용 중단 및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연속 상승. 디즈니(-13.16%)는 3 분기 실적 쇼크를 발표하며 급락, 테슬라(-7.17%) 역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40 억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각한 여파로 급락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	
주식시장	지수	가격	외환시장			
			변화	지수	가격	
S&P500		3,748.57	-2.08%	USD/KRW	1,364.75	-1.47%
NASDAQ		10,353.17	-2.48%	달러 지수	110.43	+0.72%
다우		32,513.94	-1.95%	EUR/USD	1.00	-0.6%
VIX		26.09	+2.15%	USD/CNH	7.27	+0.58%
러셀 2000		1,760.40	-2.68%	USD/JPY	146.39	+0.49%
필라. 반도체		2,424.82	-3.14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	13,502.72	-2.47%	국고채 3년	4.089	-6.3bp
유럽, ETFs				국고채 10년	4.182	-5.3bp
Eurostoxx50		3,728.03	-0.3%	미국 국채 2년	4.582	-6.9bp
MSCI 전세계 지수		591.51	+0.78%	미국 국채 10년	4.097	-2.7bp
MSCI DM 지수		2,554.87	+0.84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	900.02	+0.3%	WTI	85.56	-3.77%
MSCI 한국 ETF		55.84	-0.14%	금	1708.3	-0.4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14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73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93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71.3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친환경, 시클리컬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
2. 금일 밤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를 둘러싼 경계심리의 국내 증시 확산 여부
3. 연이은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통상적으로 중간선거, 대통령 선거 등 11 월 미국 정치 이벤트가 있는 해의 10 월부터는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으며, 선거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증시에 안도감이 형성되는 경향이 존재했음. 최근 시장의 반등에는 “선거 이후 평균적으로 증시 상승”이라는 과거의 패턴이 재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.

하지만 금번 선거는 이 같은 패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임. 10 일 한국시간 오전 6 시 기준으로 하원에서는 공화당(204석)이 민주당(187석)보다 많은 의석수를 획득하면서, 사실상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석(218석, 전체 435석)을 확보하며 승리가 유력시 된 상황. 그러나 상원에서는 현재 공화당이 49석, 민주당이 48석을 획득하면서 과반석(50석, 전체 100석) 확보를 둘러싼 접전이 이어지고 있음. 현재 남은 경합지역 3 곳 중 애리조나(민주당 우위, 개표율 72%), 네바다(공화당 우위, 개표율 80%)에서 현재 개표율 기준으로 승리를 확정한다고 가정하면, “공화당 50석 vs 민주당 49석”的 공화당 우위 구도가 형성.

문제는 조지아주 결과로써, 민주당(49.2%), 공화당(48.7%) 모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12월 6일에 이 두명의 후보만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는 것. 이는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공화당 탈환 or 민주당 수성 구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. 조지아주 결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만(공화당 51석 vs 민주당 49석),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(공화당 50석 vs 민주당 50석, but 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우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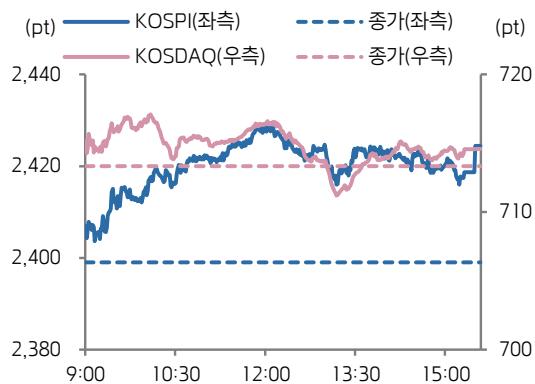
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IRA 법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었음. 이는 태양광, 전기차 vs 자동차, 에너지, 헬스케어 등 친환경 업종 주가와 전통 산업 업종 주가에 센티먼트 상(펀더멘털 x)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이미 선거 이전부터 증시에서는 레드 웨이브(공화당 모두 승리)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유입된 것으로 보임. 현재는 상원 구도를 12 월 6 일까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, 해당기간까지 증시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으면서, 관련 섹터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.

그럼에도 정치 이벤트가 증시의 방향성(연말까지 박스권 경로)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은 유효하다고 판단. 결선투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, 11 월 선거 결과가 12 월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유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000 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. 당시 엘고어와 부시 대통령 후보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플로리다주에서 부정 투표 이슈가 재기됨에 따라 일일이 수작업을 하게 되었으며, 그 결과는 12 월 12 일에 나왔고 부시의 승리로 귀결. 해당 기간(11 월 7 일~12 월 12 일) 동안 S&P500 은 4.2% 하락, 코스피는 1.9% 하락했지만, 이때의 하락은 선거 불확실성보다는 2000 년도 초부터 진행된 닷컴버블 붕괴 여파가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음. 따라서 12 월 6 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까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으나, 증시 전반적인 경로는 CPI, FOMC 등 기존 매크로 이벤트에 종속될 것으로 판단.

이상의 내용들을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는 양호한 외국인 수급 여건에도,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반도체, 빅테크, 에너지 등 주요 업종 주가 조정, 10 월 CPI 경계심리(컨센 7.9%)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실제 국내 증시에서도 IRA 법안 발표 이후 2 차전지(셀, 소재)와 자동차 업종간 주가 및 외국인 수급 차별화가 나타났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업종들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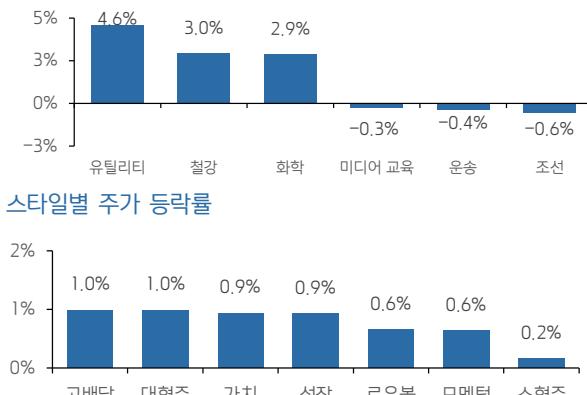
또한 전일에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FTX를 인수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으나, 일부 외신들에서 바이낸스의 FTX 실사 결과 장부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. 이로 인해 솔라나(-45%, 업비트 기준), 비트코인(-13%), 이더리움(-16%) 등 주요 코인들이 동반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위험선호심리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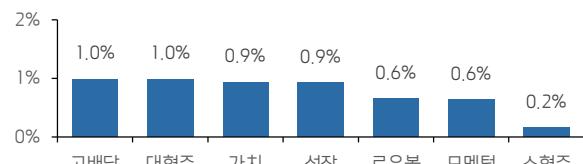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.